

[특집]

정서적 성숙을 위한 사제 양성의 수단과 양성자의 동반*

■
김 수 환

[부산가톨릭대학교 인성교양학부 교수·신부]

-
1. 들어가는 말
 2. 그리스도교 비전 안에서 정서적 성숙과 통합
 - 2.1. 정서적 통합
 - 2.2. 사랑과 정서적 자유
 3. 정서적 성숙을 위한 사제 양성
 - 3.1. 성숙함의 기준들
 - 3.2. 정서적 성숙을 위한 사제 양성의 수단들
 4. 정서적 통합 양성을 위한 양성자의 동반
 - 4.1. 양성자의 역할과 임무
 - 4.2. 양성자에게 요구되는 인격의 특성과 자질
 - 4.3. 양성자를 위한 양성
 5. 나가는 말
-

1. 들어가는 말

사제 양성은 사제직 후보자가 실제로 사제품에 이르게 하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사제가 교회와 세상에 그리스도의 가시적 징표가 되게 하는 과정이다. 교회 문헌은 미래의 사제들이 육체적, 정신적, 영적 영역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으로도 성숙을 이루어야 하며, 이는 온전히 한 인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라 지속적으로 천명하였다.¹⁾

* 이 글은 2023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계광학술연구기금'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작성된 논문임.

1) 교회는 사제를 양성하는 데에 있어서 인간적, 정서적 성숙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언급하였다. 각 문헌에서 말하는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성령의 빛을 받아 끊임없이 성숙의 여정을 걸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²⁾ 오늘날 교회의 일부 사제들에게서 미성숙한 정서적·성적 문제들이 드러나는 것도 현실이다. 사제들은 여러모로 성숙한 상태에서 성품성사를 받아야 하지만, 그것이 꼭 완성된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양성자들이 현재 문제를 지니고 있는 사제들의 신학생 시절에 그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오히려 그 신학생이 자신의 문제를 철저히 숨겼을 수도 있고 혹은 자신도 양성자도 몰랐던 정서적·심리적 여러 문제들이 서품 이후에 발견되어질 수도 있다.³⁾ 사제들이 마주하는 정서적·성적 문제들은 대표적으로 관계성의 문제에서 기인된다. 사제들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있어야 하고, 모든 사람에게 열

의 「사제 양성 교령」(*Optatum totius*, 1965)은 사제의 정서적인 성숙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신학생들을 위한 정결 교육과 그들의 인간적 성숙을 강조하면서 미래의 사제들이 더욱 완전한 성숙에 이르러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참조: 10-11항). 교황청 가톨릭교육성이 1974년에 발표한 「독신 생활 양성지침」(*Orientamenti educativi per la formazione al celibato sacerdotale*, 1974)은 신학생 인성 교육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제를 길러내는 것임을 강조하며 “사제적 인격의 기본 모습은 스승이요 사제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영혼의 목자로 나타난다”(29항)고 가르친다. 신학생들은 독신 생활을 위해서 정결 교육과 인격 형성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교육이 지향하는 바는 사제의 인격적인 성숙이며, 특별히 정서적인 성숙과 성적 성숙이다(참조: 18-23항).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사도 권고 「현대의 사제 양성」(*Pastores dabo vobis*, 1992)은 사제들이 먼저 정서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사랑이 인간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사제직 지원자들이 정서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일”(43항)임을 거듭 말한다. 1983년 새 교회법전의 발표로 인해 개정된 「사제 양성에 관한 지침」(*Ratio fundamentalis Institutionis Sacerdotalis*, 1985)은 성소에 관한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는 기준으로서 인간적·윤리적 자질에 특별히 정서적 성숙을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다(참조: 39항).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현대의 사제 양성」을 계승하면서 2016년에 새롭게 편찬한 성직자성의 지침, 「사제성소의 선물」(*Il dono della vocazione presbiterale*, 2016) 또한 미래의 사제들이 독신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성숙한 정서를 지녀야 한다고 말한다(참조: 110항).

2) 참조: 「현대의 사제 양성」, 70항.

3) 「독신생활 양성지침」, 38항: “성소를 판별하는 데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무엇보다도 심리적 결함이, 어떤 때는 병리학적 결함이 사제 서품 이후에 나타나는 경우도 가끔 발생한다. 그와 같은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은 많은 비극적 경험을 피할 수 있게 해 준다.”

려 있어야 하며, 모든 이를 전체적으로 주재해야 한다. 이것이 사제의 기본적인 모습이나, 쉬운 것은 결코 아니다. 사목 현장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움과 도전들로 인하여 사제들의 모습이 때로는 부정적인 관계의 형태를 취할 때가 있다.⁴⁾

사제 자신의 정서적·심리적 상태에 대한 균형잡힌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타인과의 관계가 부적절하거나 미숙할 때 사제들에게서 부적절함의 징후를 발견할 수 있다. 몇몇 사제들은 이러한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종종 적응의 형태로 엇나간 자신의 행동을 정상화하려는데, 이는 자신의 외적인 행동과 이상적 행동 사이의 불일치를 감추어 완화시키고 동시에 점점 더 통제가 어려운 미성숙한 정서로 드러나게 된다.⁵⁾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미래의 사제직 후보자들이 갖추어야 할 정서적 통합과 인간 성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성숙한 인간’이자 ‘성숙한 사제’가 되기 위한 사제 양성의 방법과 수단을 제안하고, 성숙한 사제를 양성하기 위한 양성자들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2. 그리스도교 비전 안에서 정서적 성숙과 통합

정서(*affettività*)⁶⁾는 우리가 살아 있다고 느끼는 정신적인 차원이

4) 사제들에게서 보이는 네 가지 유형의 부정적인 관계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1) 전지전능한 관계: 자신이 모든 것을 확인하고 결정하고 진행해야 한다는 독재적인 모습을 지닌 관계; 2) 선부른 관계: 감정적으로 쉽게 분노하는 관계; 3) 그리움의 관계: 자신이 겪은 경험과 성공, 실패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관계로 이는 큰 정서적 취약성을 유발하고 세대 분열과 불통을 유발한다; 4) 번아웃의 관계: 자신이 지닌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고, 심각한 피로감에 휩싸여 개인적인 동기가 약해지고 자발적인 요구들이 소멸할 때 일어난다(Cf. Osman Antonio di Lorenzo, *Prete oggi: "pizza" di percore, odora di Cristo*, Todi: Tau, 2016, pp.35~39).

5) Cf. Giuseppe Crea, *Preti e suore oggi: come riconoscere e prevenire i problemi*, Bologna: EDB, 2012, pp.23~24.

6) 이탈리아어 어휘에서 정서(*affettività*)는 “자기 자신이나 환경에서 비롯되는 개인의 성향과 정신적 반응을 특징짓는 일련의 사실과 현상(느낌, 감정 및 열정)으로

며, 그 안에서 나는 어떠한 감정(느낌)을 가지는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것이다. 이는 한 개인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균형 있고 조화로운 인격을 가질 때 성숙된 모습을 마주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이 혼란스럽거나 모순적일 때에 우리는 자신이 느끼고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여 내적 갈등에 휘말릴 수 있다. 따라서 정서적 성숙은 역동적인 것으로서,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들과 책임감 있는 자유의 행사를 통하여 정서적 관계를 통합할 수 있다.

정서의 역할은 인격을 구성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요소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타인에 대한 정서적·성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통합에 특별한 방식으로 기여하고, 일이나 직업에서 책임감 있게 자신을 성취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서적 성숙은 인격 기능의 최적화를 위한 필수조건으로 간주된다.

2.1. 정서적 통합

인간의 단일성과 복잡성은 사제 양성이 수행되어야 하는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통합’(integrazione)의 개념을 필요로 한다. 통합의 중요성은 그것이 인간의 모든 개인 형성의 기초를 구성하는 동시에 인격의 기본 요소라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통합은 한편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성장을 의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 전체의 다른 부분의 조화를 의미한다. 성숙한 사제가 되려면 신학생은 자신의 영,

설명된다”(Istituto della Enciclopedia Italiana, “Vocabolario della lingua Italiana”, Milano: Società anonima per la pubblicazione del vocabolario della lingua italiana, 1986, p.76). 이탈리아어 및 기타 현대 언어에서 라틴어 *afficere*에서 유래한 ‘정서’라는 용어는 특정 상태에 들어가기 위한 마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마음(*cuore*)은 사람의 정서적 삶의 자리로서, 그의 감정, 느낌, 애정, 열정, 열망 등이 나타나는 곳이다(Cf. M. Bisi, *La vita affettiva della persona credente: un itinerario di meditazione profonda*, Roma: Apostolato della Preghiera, 2017, pp.8-10). 그러므로 정서는 기분, 동기, 느낌, 감정 및 욕구와 같은 매우 광범위한 정신적 현상을 포함하거나 그것들과 다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Cf. F. Decaminada, *Maturità affettiva e psicosessuale nella scelta vocazionale*, Saronno: Editrice Monti, 1995, pp.45-56).

지성, 의지, 감수성, 정서 그리고 몸을 양성해야 한다. 또한 신학생은 이 모든 요소들의 질서정연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⁷⁾

인간은 복잡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완전성을 지향한다. 하느님이 소명의 성취를 위해 사람을 부르실 때 사제는 자신의 성실함으로 그분을 선택한다. 그는 자신의 봉사와 다른 사람들의 봉사에 자신을 헌신하기를 원한다. 이는 사제의 특성으로 표시된다. 그것은 자신이 영원한 사제이신 그리스도와 완전히 동화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이는 그리스도를 닮은 문제의 차원을 넘어 한 사람의 전체적인 인격에서 그분과 함께 자신을 구성하는 문제이다.⁸⁾

모든 사람은 자신의 정서적 경험의 특이성과 독창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정서적 경험은 현실에서 특정한 측면의 의미를 증폭시키고 내면세계의 일부 요소 또는 외부 세계의 자극을 강조하는 데 기여한다. 봉헌된 남성과 여성의 모든 삶에서 특별한 점은 개인의 삶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초월적 현실과의 관계를 맺은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복음적 권고나 사제 생활을 통해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성소의 응답은 사실 신앙의 헌신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정서적 및 동기 부여 수준에서 그 사람에게 깊은 영향을 미친다.⁹⁾

통합은 이러한 모든 정서적 경험의 확장이다. 통합은 사람의 어떤 긍정적인 경험만을 선택하고 그 외의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다. 더 잘 통합된 사람은 마음의 작은 목소리뿐만 아니라, 자신의 근원적인 긴장을 더 잘 듣는 사람이기도 하다. 통합된 사람은 하나의 소리로만 왜곡하지 않으며, 자신이 지닌 다양성으로 일탈하지도 않고 삶의 극적인 변화에 직면하여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기준으로 삼는다.¹⁰⁾

7) Cf. Jacek Bramorski, *La formazione sacerdote nella prospettiva dell'amore-dono*, Roma: Pontificia Studiorum Universitas A. S. Thoma AQ in Urbe, 1998, pp.93-97.

8) Cf. J. Bramorski, *op.cit.*, pp.95-97.

9) Cf. M. Stevani, *Il processo di maturazione a livello affettivo e sessuale*, in *Formazione affettivo-sessuale*, Bologna: EDB, 2017, pp.45-46.

2.2. 사랑과 정서적 자유

그리스도교 비전에서 진정한 정서적 통합은 사랑의 활동을 통해 서가 아니라면 인정되지 않는다. 사랑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서적 삶에서 가장 깊고 필수적인 동기이다. “인간은 사랑 없이 살 수 없다. 인간에게 사랑이 계시되지 않을 때, 인간이 사랑을 만나지 못할 때, 사랑을 체험하고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할 때, 사랑에 깊이 참여하지 못할 때, 인간은 자기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존재로 남게 되며 그의 생은 무의미하다.”¹¹⁾ 게다가 정서적 통합은 반드시 인간의 감정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랑과 함께 살았던 ‘독신’이라는 사실에 의해서도 촉진된다.¹²⁾

초기와 지속적인 성숙 과정에서 결정적인 요소는 ‘정서적인 자유’이다. 정서적 자유의 구성 요소는 두 가지 전략적 확실성, 즉 항상 그리고 영원히 사랑받았다는 확신과 영원히 사랑할 수 있다는 확신이다. 이러한 확신이 더 강하고 안정적일수록 사제직 후보자는 정서적으로 더 자유로워지며 하느님 나라를 위한 독신을 선택할 수 있다.¹³⁾ 이미 사랑받았다는 확신은 자유와 정서적 성숙의 근본적인 요소이다. 만일 이러한 확신이 없다면 정서적 성숙과 자기 선택의 필요성에 대한 모든 시도들은 헛된 것이 될 뿐이다. 이것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시오”(마태 10,8)라는 복음의 지혜이다.¹⁴⁾

보통 자유를 자율성과 독자성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자유의 문제는 독자성이라는 용어로 제기될 수 없다. 아무도 자기 혼자만으로 자유롭다고 생각하거나, 기껏해야 다른 사람의 자유가 시작되는 곳에서 자신의 자유는 끝난다고 여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사실 상황

10) Cf. A. Manenti, *Comprendere e Accompagnare la persona umana*, Bologna: EDB, 2013, pp.93-95.

11)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인간의 구원자」(*Redemptor Hominis*, 1979.3.4.), 10항.

12) Cf. T. Goffi, *L'integrazione affettiva del sacerdote*, Brescia: Queriniana, 1968, pp.98-101.

13) Cf. A. Cencini, *Per amore, con amore, nell'amore: libertà e maturità affettiva nel celibato consacrato*, Bologna: EDB, 2011, pp.877-879.

14) 참조: 박일, 「영성의 해에서 성소 및 영성지도」, 『신학과사상』 38(2001), 신학과사상학회, 106쪽.

은 정확히 반대이다. 오로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 덕분에 우리는 성장하는 것이며, 자신의 자유는 또한 다른 사람의 자유가 시작되는 곳에서 시작되고 다른 사람의 자유가 훼손되거나 부인될 때 끝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함께 자유롭거나 아무도 자유롭지 않거나 둘 중 하나이다.¹⁵⁾

그러므로 자유는 본질적으로 관계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것도 또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을 때가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과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대상에게 의존하기로 명철한 의식으로 선택한 만큼 자유롭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 이 자유의 뿌리에 사랑이 있다. 특히 이 사랑의 대상은 자신의 정체성과 진리라는 것,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의 계획이며, 자신의 피조물이 살기를 바라시는 창조주의 소망이요 충만히 살도록 하시기 위한 부르심이다. 따라서 진리에 대하여 사랑에 빠진 사람은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오직 사랑에 빠진 사람만이 사랑하는 이의 품에 조건 없이 자신을 내던지는 행위 안에, 삶의 구체적인 현실에서 어떤 ‘너’에게 속하는 것 안에, 얼마나 큰 자유가 있는지를 알기 때문이다. 이것이 정서적 자유이다.

정서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자신의 소명을 믿고 사랑하며, 그것을 실현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끌림을 느낀다. 또한 이것은 그 소명을 무의식적이고 억압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적 강요나 의식적이고 외적으로 부과된 것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의무나 수고스러운 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며, 어떤 아름다운 것이자 마음에 기쁨을 주며, 그의 보화요 그 안에 있는 자신의 정체성과 진리가 감추어져 있는 어떤 것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해 준다.¹⁶⁾

결론적으로 정서적 성숙의 관점에서 사랑은 그리스도인 정서의 뿌리가 되며, 실존적이고 안정적이며 심오한 태도로 시련의 영향 아래에서도 감사하고 나누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태도가 된다. 이러한 태도는 독신의 삶을 사는 사제들에게 있어서 필수

15) 참조: A. Cencini, 『파스카적 성을 위하여: 오늘날의 동정성과 독신』, 국헌심 옮김, 생활성서, 2011, 251쪽.

16) 참조: 같은 책, 242-243쪽.

적인 태도이자 사제 양성 안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목표가 된다.

3. 정서적 성숙을 위한 사제 양성

사제직 후보자들에게 정서적 성숙함이 필요한 것은, 그것이 인격 형성에 근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는 사제 양성의 궁극적인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제, 즉 참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적 성숙을 이루는 것이다. “사제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생히 보여 주는 사람’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되신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눈부시도록 보여 주신 그런 인간적인 완전함과 복음에 나와 있듯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분의 태도를 통해 아주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인간적인 완전함이 자기 자신 안에서도 잘 보여질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¹⁷⁾ 그러므로 사제직 후보자들의 정서적 성숙에 기여할 수 있는 양성의 수단을 심리학의 도움을 받아 살펴보자.

3.1. 성숙함의 기준들

인격의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완벽’이라는 말을 쓰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고 모든 인간 존재는 한계를 지닌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 균형을 의미하지만, 오히려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심리적 결핍의 증상일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성숙한 인간은 누구인가? 성숙의 정의를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특성들을 살펴보자. 이를 위해 심리학자들의 이론, 곧 야호다(M. Jahoda), 올포트(G. W. Allport) 그리고 매슬로우(A. H. Maslow)의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오스트리아-영국의 사회심리학자인 야호다(M. Jahoda)는 긍정적

17) 「현대의 사제 양성」, 43항.

인 정신건강의 평가 기준을 6가지 특성으로 제시한다. 첫째, 자아정체감은 자신에 대한 적절한 태도 즉 객관적인 자기인식, 현실적인 자기인식 및 자기이미지에 대한 능력이다. 둘째, 자아실현은 자신의 잠재력에 적합하고 발달 환경과 충분히 일관되고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발달 및 자기실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셋째, 통합력은 서로 다른 정신적 긴장, 실패에 대한 관용, 충분히 강하고 잘 구성된 ‘자아’의 존재 사이의 통합 및 결과적인 균형을 이루는 능력이다. 넷째, 선택 및 자기결정에 있어서 자율적인 능력을 지녀야 하고 다섯째, 사회적 현실과 그것을 둘러싼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서 현실 지각 능력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환경에 대한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적응을 포함하여, 그 사람이 ‘사랑하고 일할 수 있는’ 능력으로 구체화되는 현실 지각 능력이다.¹⁸⁾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올포트(G. W. Allport)는 현대 심리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로서, 인격의 성숙도를 판단하는 기준 6가지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자아감의 확장이다. 이는 개인이 사회에 어느 정도까지 개방되어 있는지를 보여 준다. 사람이 성숙하게 되면 자아감이 확장되어 자신의 외부의 다양한 활동이나 사람 또는 이념에 관심을 갖게 된다. 이러한 관심사는 더 이상 외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의 일부가 된다. 이러한 요소가 확장되고 성장하고 풍부해지면서 인간은 성숙해진다. 둘째, 타인과의 따뜻한 관계이다. 성숙한 사람은 친밀하고 접근 가능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고 공감하고 이해하며 다른 사람의 결점을 용인하고 다른 존재 방식과 관심사를 가진 이들의 말을 듣는 법을 알고 있다. 셋째, 정서적 안정감이다. 이는 자기수용을 통하여 안정적이고 변함 없는 감정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타인 사이의 활동을 파괴하지 않도록 자신의 감정을 다스린다. 특히 좌절을 참아내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실패에 직면했을 때 성

18) Cf. M. Jahoda, *Current concepts of positive mental health*, New York: Basic Books, 1958, pp.23~30; F. Decaminada, *op.cit.*, pp.77~78.

숙한 사람은 분노에 굴복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할 다른 이를 찾지 않는다. 넷째, 현실적 지각을 통한 과업의 수행이다. 성숙한 사람은 지속적인 삶과 그 의미를 알고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본다. 자신의 객관적인 상황을 이해한 후에 자신에게 지정된 분야에서 일하고 자신의 약속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또한 알고 있다. 다섯째, 자기인식과 유머 감각이다. 성숙한 사람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알고 있기에 자신을 이해하도록 이끄는 직관을 가진다. 자신의 결점이나 한계, 실수에 대해서는 유머 감각을 통하여 그것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방법을 안다. 여섯 번째는 통합된 삶의 철학을 지녀야 한다. 성숙한 사람은 통합된 삶의 철학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며 원대한 목적과 계획에 의해 동기가 유발된다. 또한 목적의식과 일을 완수하려는 사명감이 있다.¹⁹⁾

인본주의 심리학자인 매슬로우(A. H. Maslow)는 성숙한 인격을 연구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매슬로우는 창조적인 업적과 더불어 인격적으로도 성숙한 세계적인 위인들의 삶을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자아실현을 이룬 성숙한 사람을 다음과 같은 자질로 요약한다. 성숙한 사람은 사람과 사물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을 지니며, 자기 자신과 타인의 속성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지닌다. 그리고 타인과의 확고한 인간적 유대를 지니고서 미소를 불러일으키는 선량한 유머 감각을 지녔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몰두할 줄 알며 책임감을 지니며, 새로운 체험에 대해 열려 있는 자세를 가진 이들이 자아실현을 이룬 성숙한 사람이라고 본다.²⁰⁾

19) Cf. G. W. Allport, *Psicologia della personalità*, Zurigo: Pas-Verlag, 1967, pp.241~260; B. Goya, *Psicologia dinamica e vita spirituale*, Roma: Teresianum, 1985, pp.73~89; F. J. Insa Gómez, "Accompagnare i candidati al sacerdozio sulla strada della maturità", *Tredimensioni* 14(2017), 177~186.

20) Cf. A. H. Maslow, *Motivazione e personalità*, Roma: Armando, 1982, pp.252~292; A. Pascucci, *Caratteristiche della personalità matura*, in *Compendio di teologia spirituale*, Pust, Roma: Pust, 1992, pp.495~496; B. Goya, *op.cit.*, pp.71~72.

3.2. 정서적 성숙을 위한 사제 양성의 수단들

인간적 성숙을 위하여, 특별히 정서적 성숙을 위한 사제 양성의 수단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들을 통합하고 성숙시키기 위한 단 하나의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사제직 후보자들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독특함과 특수성에 따라 양성의 방법과 지도는 유연하게 대처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교회의 교도권이 말하는 양성의 방법 중에서 성소 식별과 동반(개인 동반 / 공동체 동반²¹⁾을 인간 성숙에 대해 연구한 심리학자들의 이론에 기반하여 정서적 통합을 위한 사제 양성의 수단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기인식과 자기수용은 정서적인 성숙에 이르게 하는 기초이며 이는 개인의 성소 식별과 연관된다. 사제 양성 영역에서 성소 식별은 하느님으로부터 행해진 부르심의 근본적 표지들을 규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신학교 양성 기간 중 행해지는 성소 식별의 본질적인 의미는 객관적인 평가의 기준을 통해 하느님의 뜻이 담긴 자연적이고 초자연적인 선물의 실재를 성소자의 인격 안에서 재확인하는 데 있다. 특히 인성 교육과 관련된 식별은 신학생이 성숙하고 건전하며 비정상적이지 않은 성격을 소유하고 있는지, 균형 잡힌 인격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일련의 인간적 자질을 지니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성찰하는 영역에 해당한다. 또한 이러한 성찰은 신학생이 사제 직무와 연관된 활동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지를 살펴 보도록 도와줄 것이다.²²⁾

21) 프란치스코 교황의 「복음의 기쁨」에서부터 등장한 ‘동반’(accompagnamento)이라는 개념이 사제 양성에 포함되기 시작한 것은 2016년에 새롭게 발간한 사제 양성 지침서 「사제 성소의 선물」부터이다. 「사제 성소의 선물」은 ‘개인 동반’의 목적을 “성소를 식별하고 선교하는 제자를 양성하는 것”(44항)이라 하고, ‘공동체 동반’은 신학교 공동체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형제적 친교를 통해 미래의 사목자로서, 사제단의 한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끈다(참조: 50-52항).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하라. 김의태, 「사제 성소의 선물에서 말하는 사제 양성의 기초와 여정」, 『이성과 신앙』 68(2020), 282-286쪽.

22) 참조: 이춘택, 「사제 양성 과정 안에서의 성소 식별」, 『누리와 말씀』 35(2014), 인

신학생이 지니고 있는 인간적 성숙함과 의지의 확고함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한 인간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또한 사제로서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제되는 조건이다. 따라서 성소의 성숙과 본질적으로 연관된 영역들을 신학생의 실제 상황과 함께 확실한 주의를 가지고, 과연 신학생의 자유로운 의지와 정서적 성숙함으로 사제직을 열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²³⁾

둘째, 균형 잡힌 정서적 안정을 가지고서 현실에 맞는 안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제어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정서적인 안정감은 개인 동반을 통하여 양성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학생들은 자기 삶의 역사를 성찰하고 양성자와 나뉘므로써 청소년기의 경험과 가정의 영향,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을 발견하고 고독의 순간들을 긍정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도움을 제공받는다. 또 개인 동반을 통해서 신학생들은 인간 개인의 모든 측면을 통합시키는 작업, 곧 스스로에게 드러나는 생각과 말과 행위가 ‘나’와 분리된 것이 아닌 전적으로 나에게서 출발하고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직면하고 깨닫는 작업과 경청하는 자세, 대화하는 자세, 순종의 참된 의미와 내적 자유를 배울 수 있다. 이를 위해 동반 과정 중 양성자들은 신학생과 투명하고 진실한 관계를 맺어야 하고, 그러한 관계는 상호 신뢰를 필요로 한다. 상호 신뢰의 관계 안에서 양성에 있는 사람들과 양성자들 사이에 대면하는 소통의 순간을 통하여 사제직 후보자들은 그동안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고 경험한 강점과 약점을 확인하며 그 체험 안에서 경험한 감정과 느낌을 나누고 질문하고 조언과 지도를 받게 된다.²⁴⁾

정서적 통합을 위한 세 번째 양성의 수단은, 타인과의 따뜻한 관

천가톨릭대학교 복음화연구소, 195쪽; 「현대의 사제 양성」, 43항; 「교회법」 제245조 2항, 제275조 1항, 제1051~1052조 참조; A. Favala, *La formazione iniziale dei candidati al presbiterato*, Roma: Rogate, 1995, p.144.

23) 참조: 이춘택, 앞의 글, 195쪽; 「사제 양성 교령」, 6항; 「사제 양성 기본 지침」, 39항; 「교회법」 제241조 1항.

24) Cf. P. Gamini / M. O. Llanos / G. Roggia, *Mete, Criteri e fasi dell'itinerario*, in *Formazione affettivo-sessuale*, Bologna: EDB, 2017, p.383.

계를 위한 공동체 생활이다. 초기 양성 과정 중 이루어지는 공동체 생활은 너무나 큰 가치들이 숨어 있다.²⁵⁾ “공동체 생활은 자기 의도 정화, 생활 방식의 변화, 인간관계 맺기, 대화와 토론의 장이 되며, 장차 사제와 자기 주교와의 관계, 사제와 다른 사제들과의 관계, 사제와 평신도들과의 관계에 큰 도움이 된다.”²⁶⁾ 신학교는 공동 생활을 통해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미덕들을 실천하여 인간적 성숙을 더욱 깊이 심화시키도록 하고 있다. 공동체 생활은 학생들에게 책임 의식을 지니고 봉사 정신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을 익혀 그리스도의 모범을 본받을 수 있는 체험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한다. 또한 개개인에게 영향을 주어 자신을 그리스도께 더욱 동화시켜 자신의 의도를 정화하고 더 나아가 포기하는 희생정신과 협력의 유대감을 체험하여 생활 방식을 변화시키도록 하는 인성 양성의 현장이 된다.²⁷⁾

공동체 동반을 위한 경험 그룹(*il gruppo esperienziale*)은 심오하고 정서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자신의 경험을 전달하는 중심성이 있어 양성 여정의 중요한 포인트를 구성한다. 자신의 경험을 공유할 때 관계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서적-섹슈얼리티의 대화와 풍부함을 경험한다. 다른 사람들과 상호 교환되는 신뢰는 친밀감, 환영받음, 감사함을 느낄 수 있게 한다. 동시에 그룹으로 진행되는 양성의 대화에서 한 사람의 경험을 비교하는 것은 유사점과 차이점을 심화하고 발견하는 진정한 정서적 공동체를 구성한다. 그리하여 경험 그룹에서 확립된 관계의 질이 공동체 자체에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가 된다.²⁸⁾

사실 인간이 지니고 있는 여러 차원들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듯이, 사제직 후보자들의 인격적-정서적 성숙을 위한 양성의 방법

25) 참조: 「사제 생활 직무 교령」, 7-9항; 「현대의 사제 양성」, 17항, 22-23항, 43항, 59항.

26) 김의태, 앞의 글, 285쪽.

27) 참조: 「사제 성소의 선물」, 50-52항; 90항.

28) P. Gamini / M. O. Llanos / G. Roggia, *op.cit.*, p.383.

이나 수단도 정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다. 양성의 수단과 모델은 교회의 역사와 시대의 상황 안에서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²⁹⁾ 신학생의 개인 동반 과정 안에서 양성적 대화뿐만 아니라 성소 식별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고, 공동체 동반 안에서 개인의 성소 식별을 또한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사제직 후보자들을 위한 양성의 방법은 항상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양성의 목적과 그 방향성이 대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으로 향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4. 정서적 통합 양성을 위한 양성자의 동반

사제직 후보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사제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후보자들을 이끌어 줄 양성자들의 자질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양성되는 사람과 양성하는 사람인 양성자가 없다면 어떠한 양성도 가능하지 않다. 양성 계획의 우수성과 효율성은 부분적으로는 구조에 의존하지만 주로 양성자들에게 달려 있다.”³⁰⁾

4.1. 양성자의 역할과 임무

양성자는 자신이 활동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제직 후보자들이

29) A. Cencini는 과거 양성의 모델들과 대안적 모델을 소개하고 있다. 과거의 (또한 오늘날의) 모델들은 (1) 완성의 모델(Modello della Perfezione), (2) 공동체 순응 모델(Modello dell'Osservanza Comune), (3) 자기 실현 모델(Modello dell'Autorealizzazione), (4) 자기 수용 모델(Modello dell'Autoaccettazione), (5) 유일한 기준의 — 또는 통합적이지 않은 — 모델 (Modello del Modulo Unico - o della non integrazione), 그리고 A. Cencini가 제안하는 모델은 통합의 모델(Modello dell'Integrazione)이다. 참조: 김유정, 「그레고리안 대학의 사제 양성자를 위한 양성 과정 소개」, 『복음과 문화』 16(2012), 35-45쪽; A. Cencini, “L'albero dell'vita: verso un modello di formazione iniziale e permanente”, Roma: San Paolo, 2005, pp.19~236.

30) 「사제의 직무와 생활 지침」(2018), 108항.

다양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그들에 대한 특정한 양성 활동을 수행하는 역할을 지닌다. 양성자는 후보자들이 그리스도교의 체험과 문화를 받아들이게 하고, 사람과 공동체의 삶과 관련하여 좋은 형태의 사제가 되도록 그들을 알게 하고 행동하게 하며, 이해하도록 돕는다. 유능하고 효율적인 양성자는 사제직 후보자의 전인적인 모습을 이해하면서 그의 모든 발달 측면을 관리한다. 피양성자가 성장하도록 돕는 구체적인 양성자의 임무는 사랑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자극하고, 조정하고, 가르치고 조절하는 것이다.³¹⁾

그런데 양성자 또한 내적인 균형이 필요한 한 인간 존재이다. 내적인 균형은 정서적인 문제, 사회적 수용 가능성, 대인관계, 개인적인 만족 등과 관련된 갈등의 주요 원인을 정상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습관적인 능력의 결과이다. 따라서 이러한 양성자의 내적인 균형과 정서적인 성숙을 통한 사랑으로 신학생들을 위해 봉사하고,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바치는 것이 양성자의 역할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임무이다. 이러한 진정한 목자적 사랑이 없이는 사제 양성은 불가능할 것이다.³²⁾

이러한 이유로 양성자는 결코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심오한 동기를 필요로 하는 선택이고, 다른 사람에게 선물이 되고 신학생들에게 봉사하며 그들이 자신의 사랑의 선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진정한 경향의 결과로 양성의 임무를 선택하게 된다. 이에 대해 「사제 양성에 관한 교령」도 양성자들은 “자신들의 사고방식과 행동 방식이 신학생들의 교육 성과에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심하여야 한다”³³⁾고 말한다.

무엇보다도 사제 양성의 이러한 역할과 임무의 첫 번째 책임자는 교구장 주교이다. 주교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제직 후보자들의 양성에 대한 직무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도 막중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사제들

31) Cf. M. Szentmártoni, “Psicologia della vocazione religiosa e sacerdotale”, Roma: Editrice Pontificia Università Gregoriana, 2005, p.124.

32) Cf. J. Bramorski, *op.cit.*, p.73.

33) 「사제 양성 교령」, 5항.

을 신중하게 선발해야 한다.³⁴⁾

모든 신학교에서는 학장을 대표로 하는 양성자 공동체를 구성해야 한다. “양성자 공동체는 학장과 정기적으로 만나서 기도하고 신학교 생활의 계획을 짜고 정기적으로 신학생들의 성장을 평가하여야 하고, [...] 사제직의 가치에 일관되고 훌륭한 증언을 제공하는 참된 교육 공동체이다.”³⁵⁾ 이렇게 양성자 공동체가 구성되어 양성자들 사이의 친교와 협력의 정신으로 사제직 후보자들을 양성해 나가면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제 양성 안에서 항상 첫 번째의 양성자는 바로 성령이라는 점이다.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주시는 도움 없이는 사제직을 준비시키는 양성 작업을 참되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³⁶⁾ 사제 양성은 본질적으로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성령의 활동이다. 그러므로 사제 양성은 양성자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닌 성령의 빛에 인도되어 양성의 제1책임자인 주교에게 위임을 받은 여러 양성자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적 활동이다.

4.2. 양성자에게 요구되는 인격의 특성과 자질

사제 양성과 관련된 여러 교회 문헌에서는 사제 양성을 책임진 이들의 자질과 특성에 대해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강조한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사도적 권고 「현대의 사제 양성」은 주교들에게 모범적 생활과 함께 여러 가지 자질들을 갖춘 사제들 중에서 양성자들을 뽑도록 요구한다. 사도 권고에서 말하는 자질을 갖춘 사제들은 다음과 같다. 인간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숙한 인격을 소유한 사제, 사목 경험이 있는 사제,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갖춘 사제, 그리고 자신의 소명에 대하여 굳건함을 가진 사제, 협력하는 자세를 갖추어서 그룹 작업에 협력할 수 있는 사제 그리고 양성 과정에 맡겨진 직책에 필요한 학문에 있어서, 특별히 심리학에 있어서도 이론적으로 교육된 사제이다. 사도 권고는 이러한 자질들을 갖춘 사

34) 참조: 「현대의 사제 양성」, 66항; 「신학교 양성자의 양성에 관한 지침」, 18항.

35) 「사제 성소의 선물」, 132항.

36) 「현대의 사제 양성」, 65항.

제들을 사제직 후보자를 위한 양성자로 선발하도록 간곡히 권고한다.³⁷⁾

「신학교 양성자의 양성에 관한 지침」도 양성자의 필수 자질을 나열한다. 문헌에 따르면, 양성자는 신앙심, 사목적 감각, 친교의 정신, 성숙한 인성과 심리적 균형, 분명하고 성숙한 사랑의 능력, 경청과 대화, 의사소통 능력, 현대 문화에 대한 긍정적이고 비판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³⁸⁾ 사제직 후보자를 이끌기 위해서는 양성자들이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숙함에 도달해야 한다. 특히 사제직 후보자들의 정서적 성숙과 통합을 위해서, “모든 양성자는 인간의 성장 주기, 역량과 약점, 하느님과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방식 등 인간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양성자는 예리한 감각과 적절한 심리학 지식을 지녀야 한다. 그리하여 가능하다면 신학생이 사제가 되려는 진정한 동기가 무엇인지, 신학생이 인간적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는 데 장애물은 없는지, 신학생에게 어떤 정신 병리학적 장애가 있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³⁹⁾

A. Cencini는 양성자 자신이 특정한 수준의 정서적 성숙에 도달했을 때 그리고 그가 자신의 정서적 삶에 독창적이고 중심적이며 지배적이고 초월적인 동기로서 평온하게 자신의 독신을 살아갈 때, 양성자로서 충분하고 효과적인 자질을 갖춘다고 말한다.⁴⁰⁾ 그는 정서적 성숙의 여정을 돕기 위한 양성자의 여러 자질을 다음과 같이 나열한다. a) 양성자는 자신이 지닌 가장 취약한 점과 정서의 덜 강하고 덜 자유로운 영역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b) 양성자는 정서적 갈등과 미성숙, 심지어 무의식적인 것들의 존재를 피양성자에게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양성자는 신학생들이 문제 제기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며 특히 젊은이가 어떤 어려움이 없

37) 참조: 같은 책, 66항; 한영만, 「2001년 한국 사제 양성 지침이 취하고 있는 원천들에 대한 포괄적 접근」, 『신학과 사상』 40(2002), 142~143쪽.

38) 「신학교 양성자의 양성에 관한 지침」, 26~41항.

39) 「신학생 선발과 양성에서 심리학 활용 지침」, 3~4항

40) Cf. A. Cencini, *Per amore con amore nell'amore*, p.99.

다고 말할 때, 외부 행동만으로 관찰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양성자는 관찰 가능한 행동 외에 가장 깊은 동기, 근본적인 욕구, 숨겨진 긴장을 인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피양성자의 정서적 일관성과 비일관성의 정도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c) 양성자는 신학생이 자신의 정서적 미성숙과 그 뿌리 및 결과를 발견하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d) 양성자는 젊은이가 자신의 정서적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돕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신학생들이 지닌 이러한 어려움들은 종종 무의식적이기 때문에, 양성자는 무의식적인 조건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마음과 정신과 의지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필요한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e) 양성자는 젊은이가 새로운 기반에서 자신의 정서적 삶을 구축하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젊은이들은 그리스도의 가치를 개인적 선택으로 그리고 이 가치의 내면화(internalizzazione)의 결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f) 양성자는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먼저 피양성자와 함께 살아야 하는데, 이는 일상생활 안에서 그들을 직접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이는 개인을 알게 하는 가장 좋은 정보의 원천이다.⁴¹⁾

양성자는 사제직 후보자들의 발달 연령의 정서적 문제에 대해 가장 긴밀하게 개입해야 한다. 신학생들이 적절한 조건, 곧 인간관계의 구조에 질서 있는 개입을 통해 인간적 성숙을 이룬다면 독신생활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사제직 후보자들의 정서적 성숙을 위해 양성자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자질과 특색을 갖추어야 하며, 스스로 또한 이러한 성숙의 길 위에 있어야 하고 성령의 빛에 인도되어 자신을 끊임없이 쇠신시킬 줄 알아야 할 것이다.

4.3. 양성자를 위한 양성

정서적으로 성숙한 미래의 사제들을 양성하기 위해 양성자들이 먼저 인격적 성숙을 이루어야 함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이를 위

41) Cf. *Ibid.*, pp.99-105.

해 미래의 양성자들은 임명 전에 여러 자질들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임명 이후에도 그들을 위한 지속적인 양성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다. 양성자를 위한 지속 양성은 양성자 본인의 사제적 삶을 지탱하고 깊이 해 나가기 위한 도움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양성자 스스로 사제 양성의 책임을 수행해 나가는 가운데 만나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여러 다양한 상황들, 예를 들어 양성자로서 자신의 능력 부족에 대한 자각, 장상과 동료 사제로부터 유능한 양성자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 피양성자와의 관계 안에서 정서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역량의 결여, 양성 과정에서 맛보게 되는 실패감, 교육의 모범으로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의 비현실성 또는 자신 안에 존재하는 심리적 비밀관성 등의 요인들로 인해 야기되는 어려움이다.⁴²⁾

양성자 역시도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성소를 살아가는 사람이다. 피양성자와 마찬가지로, 그들 자신도 개인 차원에서 자신의 사제 성소 그리고 양성자에게 맡겨진 역할을 지속적으로 심화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지닌다. 이러한 과정에서 본인이 속한 공동체의 환경, 그리고 더 크게는 사회문화적 요인들로부터 받게 되는 영향들이 적지 않다. 그렇기에 양성자들 역시 초기 양성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의 사제 양성을 계속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⁴³⁾ 결국 “사제 양성이 어느 정도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대부분 사제 양성을 책임진 사람들의 인격이 인간적인 관점에서나 복음적인 관점에서나 어느 정도로 성숙되어 있고 강인하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사제 양성을 책임지는 사람들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일과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기에 더욱더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그들을 독려하는 일은 특히 중요한 일이다.”⁴⁴⁾ 또한 양성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닌 성령의 빛에 인도되어 양성의 제1책임자인

42) A. Cencini, “La crisi nella vita del formatore”, *Tredimensioni* 7(2010), 154-161.

43) 참조: 민범식, 「교구 사제 양성의 방향과 내용: 무엇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사목연구』 39(2017),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140쪽.

44) 「현대의 사제 양성」, 66항.

주교에게 위임받아 여러 양성자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적 활동임을 기억해야 한다.

5. 나가는 말

사제가 된다는 것은 어느 한 번의 사건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한편으로는 사제 서품을 통해 사제가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사제는 평생을 통해 착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제가 되어가는 여정을 걷는다. 따라서 사제직 후보자들의 초기 양성은 한순간에 완벽한 이상적인 사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제가 평생의 삶을 통해 겪게 될 어려움과 문제들을 직면하고 이겨낼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다.

교회의 가르침은 한결같이 사제가 되기 위해선 성숙한 인간적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중에서 우리는 사제의 정서적 성숙에 대해 살펴보았다. 정서적 성숙은 사제직 후보자들이 갖추어야 할 성숙된 인격 중 하나로서, 이 성숙으로 말미암아 사제의 독신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다. 사제직 후보자들이 성숙한 사제 생활과 거룩한 독신 생활을 위해서 충분하고도 통합적인 양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양성자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신학생들을 위한 개인·공동체 동반을 위해서 그들 스스로가 먼저 성숙된 인격과 여러 자질과 특색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사제 양성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 주는 것이다. 또한 그분의 얼굴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자신의 실존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사제가 된다는 것은 하느님의 백성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굳건한 신앙을 고백하는 동시에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살겠다는 다짐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미래의 사제들을 양성하는 이들은 인성과 영성 교육을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또한 양성자들은 그리스도야말로 양성의 모범이시며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참된 교육자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서적으로 성숙함을 지닌 사제를 양성하기 위하여, 사제직 후보자들의 감정, 애정, 느낌, 열정 등과 같은 인간의 정서적인 측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찰, 자기훈련 그리고 충실한 양성자의 동반을 필요로 한다. 이 정서성은 인간 성숙의 역동적인 것으로서, 하느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소유하고 그분의 크신 사랑을 온전한 모습으로 받아들여 참된 사제 생활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참고 문헌]

1. 교회문헌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현대의 사제 양성」(*Pastores dabo vobis*, 1992.3.25),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3.
- _____, 회칙 「인간의 구원자」(*Redemptor Hominis*, 1979.3.4),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1.
- 교황청 가톨릭교육성, 「독신생활 양성지침」(1974.4.11), 『사제양성: 신학생 교육에 관한 교회 문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3, 275~365쪽.
- _____, 「사제 양성의 기본 지침」(1985.3.19), 『사제양성: 신학생 교육에 관한 교회 문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3, 32~123쪽.
- _____, 「신학교 양성자의 양성에 관한 지침」(1993.11.4),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34(2005), 93~139쪽.
- _____, 「신학생 선발과 양성에서 심리학 활용 지침」(2008.6.29),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40(2009),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79~298쪽.
- 교황청 성직자성, 「사제 성소의 선물」(2016.12.8),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8.
- _____, 「사제의 직무와 생활 지침」(2013.2.11),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8.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제 양성에 관한 교령, 「온 교회의 열망」(*Optatam totius*, 1965.10.28),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2.
- _____, 사제의 생활과 교역에 관한 교령, 「사제품」(*Presbyterorum Ordinis*, 1965.12.7),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2.

2. 단행본

- Allport, G. W., *Psicologia della personalità*, trans. A. Ronco, Zürich: Pas-Verlag, 1969.
- Antonio, O. di Lorenzo, *Prete oggi: "puzza" di pecore, odora di Cristo*, Todi: Tau, 2016.
- Bisi, M., *La vita affettiva della persona credente: un itinerario di meditazione profonda*, Roma: Apostolato della Preghiera, 2017.

- Bramorski, Jaeck, *La formazione sacerdote nella prospettiva dell'amore-dono*, Roma: Pontificia Studiorum Universitas A. S. Thoma AQ in Urbe, 1998.
- Cencini, A., 『파스카적 성을 위하여: 오늘날의 동정성과 독신』, 국춘심 옮김, 생활성서, 2011.
- _____, *L'albero della vita: verso un modello di formazione iniziale e permanente*, Roma: San Paolo, 2005.
- _____, *Per amore, con amore, nell'amore: libertà e maturità affettiva nel celibato consacrato*, Bologna: EDB, 2011.
- Crea, G., *Preti e suore oggi: come riconoscere e prevenire i problemi*, Bologna: EDB, 2012.
- Decaminada, F., *Maturità affettiva e psicosessuale nella scelta vocazionale*, Saronno: Editrice Monti, 1995.
- Favala, A., *La formazione iniziale dei candidati al presbiterato*, Roma: Rogate, 1995.
- Gamini, P. / Llanos, M. O. / Roggia, G., *Mete, Criteri e fasi dell'itinerario*, in *Formazione affettiva-sessuale*, Bologna: EDB, 2017.
- Goffi, T., *L'integrazione affettiva del sacerdote*, Brescia: Queriniana, 1968.
- Goya, B., *Psicologia dinamica e vita spirituale*, Roma: Teresianum, 1985.
- Jahoda, M., *Current concepts of positive mental health*, New York: Basic Books, 1958.
- Manenti, A., *Comprendere e Accompagnare la persona umana*, Bologna: EDB, 2013.
- Maslow, A. H., *Motivazione e personalità*, Roma: Armando, 1982.
- Pascucci, A., *Caratteristiche della personalità matura*, in *Compendio di teologia spirituale*, Roma: Pust, 1992, pp.487~508.
- Stevani, M., *Il processo di maturazione a livello affettivo e sessuale*, in *Formazione affettivo-sessuale*, Bologna: EDB, 2017, pp.45~76.
- Szentmártoni, M., *Psicologia della vocazione religiosa e sacerdotale*, Roma: Editrice Pontificia Università Gregoriana, 2005.

3. 정기간행물

- Cencini, A., “La crisi nella vita del formatore”, *Tredimensioni* 7(2010), 154~165.
- Insa Gómez, F. J., “Accompagnare i candidati al sacerdozio sulla strada della maturità”, *Tredimensioni* 14(2017), 176~187.
- 김의태, 「사제성소의 선물에서 말하는 사제 양성의 기초와 여정」, 『이성과 신앙』 68(2020), 수원가톨릭대학교, 273~300쪽.

- 김유정, 「그레고리안 대학의 사제 양성자를 위한 양성 과정 소개」, 『복음과 문화』 16(2012), 대전가톨릭대학교, 3-64쪽.
- 민범식, 「교구 사제 양성의 방향과 내용: 무엇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사목연구』 39(2017),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109-149쪽.
- 이춘택, 「사제 양성 과정 안에서의 성소 식별」, 『누리와 말씀』 35(2014), 인천가톨릭대학교 복음화연구소, 179-225쪽.
- 한영만, 「2001년 한국 사제 양성 지침이 취하고 있는 원천들에 대한 포괄적 접근」, 『신학과 사상』, 40(2002), 신학과사상학회, 127-153쪽.

국문초록

본고는 사제 양성을 하는 데에 있어서 미래의 사제들이 갖추어야 할 정서적 성숙에 대한 양성의 수단과 이를 동반하기 위한 양성자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교회는 미래의 사제들이 온전히 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정서적·심리적 성숙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교회의 사제는 여러모로 성숙한 상태에서 성품성사를 받아야 하지만, 그것이 꼭 완성된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교회의 일부 사제들에게서 미성숙한 정서적·성적 문제들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대한 반성적인 성찰로 본고에서는 미래의 사제들이 갖추어야 할 ‘정서적 성숙’은 어떠한 측면을 담고 있는지 현대의 심리학을 기반으로 살펴보았다.

인격의 성숙을 연구하였던 다양한 심리학자들 중에서 사회심리학자인 야호다(M. Jahoda), 올포트(G. W. Allport) 그리고 인본주의 심리학자인 매슬로우(A. H. Maslow)가 말하는 성숙한 인간에 대한 연구는 사제 양성의 ‘정서적 성숙’에 대한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본고에서는 사제 양성 안에서 미래의 사제들이 정서적 성숙과 통합을 위한 사제 양성의 수단으로 세 가지 측면을 제안하였다. 첫째는 자기인식과 자기수용으로서 이는 개인의 성소 식별과 연관된다. 곧 사제직 후보자가 균형 잡힌 인격을 지니고 자유로운 의지와 정서적인 성숙함으로 사제직을 열망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는 균형 잡힌 정서적 안정을 토대로 현실에 맞는 안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성숙한 양성자와의 개인적 동반이 도움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타인과의 따뜻한 관계를 위한 공동체 생활이 정서적 성숙과 통합을 위한 양성의 수단이 된다. 초기 양성 과정에서 공동체 생활은 소중한 가치들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공동체 동반을 통한 경험 그룹의 형성은 자신의 경험을 전달하는 중심성이 있어, 양성 여정 안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제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래의 사제들을 양성할 양성자들의 성숙이 우선되어야 한다. 양성의 제1책임자인 주교는 양성자를 선발하는 데에 있어서 엄격한 기준과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하며, 선발된 양성자들은 자신들의 임무와 역할이 교회의 미래를 성장시키는 데에 중요한 측면을 담당하게 됨을 스스로 인지하여 양성자 자신부터 지속적인 양성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그리하여 교회의 양성자는 착한 목자이시며 대사제이시면서도 성숙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제를 양성하는 데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주제어: 사제 양성, 정서적 성숙, 성숙한 사제, 양성자, 양성자의 양성.